

■ 코로나19 유행 1년, 제주 소상공 '창업↔폐업' 악순환 심화

여행사 줄고 문 닫은 음식점 늘었다

여행사 코로나 직격탄 맞고 작년말 기준 감소세 전환
일반음식점 1년간 596곳 폐업... 전년보다 67곳 늘어

코로나19와의 전쟁이 1년 내내 지속된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가 여행사, 음식점 등 사회 전반에 미치며 충격을 건디다 못해 문닫는 곳이 증가하는 등 고군분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여행업은 1001곳으로 일반여행업 331곳, 국외여행업 118곳, 국내여행업 552곳이다. 이는 2019년 말(1056곳)에 견줘 55곳 줄어든 수치다. 등록 여행업은 꾸준한 여행 수요에 힘입어 2016년 1017곳으로 처

음 1000곳을 넘어선 후 2017년 1042곳, 2018년 1059곳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는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고 해외여행이 완전히 막히면서 내국관광객이 제주로 밀려들었지만 단체여행이 급감하고 개별여행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안그래도 과당경쟁을 펼쳐온 여행업체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은 제주 여행 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등록 여행업이 1년 전보다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여행업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전한 일반음식점의 상황도 신규와 폐업 규모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신규로 문을 연 일반음식점은 981곳, 폐업한 곳은 596곳으로 집계됐다. 1년 전(신규 1071곳, 폐업 529곳)과 비교하면 신규가 감소했는데, 문닫는 곳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몇년동안의 일반음식점 창업과 폐업 추이를 보면 창업은 2017년 1009곳, 2018년 1039곳, 2019년 1071곳으로 1000곳대를 유지하며 미미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같은기간 폐업은 368곳→437곳→529곳으로 해마다 늘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일반음식점에 도전하는 자영업자들은 여전하지만 출혈경쟁의 악순환에 버티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코로나19가 휩쓸면서 일반음식점의 폐업 규모는 더 커졌고, 올해 상황도 호전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폭설 그친 뒤... 한라산 탐방로 제설작업
이 관음사 탐방로에 쌓인 눈을 지우고 있다. 지난 6일부터 한라산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11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 강행만기자

18억 사기혐의 4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갈옷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월 5부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등 2019년 4월까지 16억2900여만원을 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억6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고의나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미숙기자

예인선-화물선 충돌

제주항에서 예인선과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조사 중이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28분쯤 제주항 3부두에 정박해 있던 일반화물선 A호(제주선적·3560t)를 운항 중이던 예인선 B호(제주선적·139t)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호 선미 부분에 구멍이 뚫리고, B호 역시 일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대혜기자

우도 해중전망대 추진 다섯차례 '퇴짜'

주민 갈등·생태계 훼손 논란 도경관심의위 "사업 재검토"

우도에 추진 중인 해중전망대 사업이 경관 심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심의회를 열고, 해중전망대 사업의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회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디자인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해중전망대 사업은 경관심의회에서만 총 다섯 차례 고배를 마셨다.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은 2018년 제주시의 우도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사업자는 150억원을 투입해 오봉리 전출동 공유수면 2000㎡에 17m 높이의 해중전망대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연 생태계 훼손 논란과 우도면 주민들간 찬반 갈등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사업자 측에서 경관심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사업을 재추진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은 조정 계획 일부를 수정하라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의수 낀 장애인 뒷수갑 체포 논란

경찰 "현행법 체포 과정
반항 심해 뒷수갑 사용"

인권위 "신체 자유를 침해"
관련 경찰 '주의' 조치 권고

경찰이 한쪽 팔에 의수(義手)를 착용한 장애인을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운 행위에 대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씨가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해 제주 모 지구대 B경위와 C경장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의수를 착용했음에도 뒷수갑을 채우는 등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미란다 원칙 미고지'에 대한 내용은 기각하고 '뒷수갑 사용'에 대한 진정은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3일 제주시 한 애완동물 가게에서 강아지 분양 계약금 반환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였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소비자 구제절차를 이용할 것, 가게 밖으로 나가서 얘기할 것 등을 수차례 설득했다.

A씨가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자 경찰은 "퇴거 불응으로 체포하겠다"며 A씨의 팔을 뒤로 잡고 뒷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A씨의 반항이 심해 뒷수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체포 당시 뒷수갑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A씨가 저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체포 상황에서 뒷수갑 사용은 사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나아가 당시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A씨가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덧붙였다. 강대혜기자

코로나19 시국 미스터리한 기초학력

지난해 제주 초등생 읽기·쓰기·셈하기 능력 향상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크게 줄었는데도 제주 초등학생의 '기초학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2020학년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성과 및 2021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도내 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한글 미해독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6월에는 7185명 중 192명(2.67%)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지만, 같은해 12월에는 7325명 가운데 70명(0.96%)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집계한 1.5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3R's)를 검사한 결과 기준 점수 미도달 학생이 2020년 6월에는 2만7592명 중 314명(1.14%)이었는데, 같은해 12월에는 2만7210명 중 106명(0.39%)으로 감소했다. 2019년

12월 기준 조사에서는 기준 점수 미도달 학생 비율이 0.51%였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면대면 지도 강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감소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도 학생들의 문해력·수리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는 읽기·쓰기 100단계, 수학 과목에서는 수와 연산 내용 체계도 및 기초연산 지도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학습부진 원인을 ▷난독 및 읽기 곤란 ▷인지 ▷다문화 ▷탈북 ▷정서 행동 ▷북지대상 ▷자기주도학습 능력으로 설정,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합격

5급 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임근영
(대기고 64회, 고려대 영어교육과 재학)
(부: 故 임창민(구좌읍 하도리) · 모: 한수진(교사))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별꽃모임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이우택
(안락면 대평리장)

농림축산식품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도 서귀포시이장연합회
회장 고행곤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진

행정사무관



박정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밀양박씨 밀직부원군과 장전임도
제주문중회장 박영호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합격

5급 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송진현
(대기고 23회, 연세대 행정학과 재학)
부: 송원방(표선중 26회) · 모: 강현순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훌륭한
공무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표선중학교 26회 골프동호회